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결 재	서 무	간 사	의 장
			

제7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 시	2017. 02. 06(월) 10:00
		장 소	본부관 311호
참석인원	의장 이창현, 부의장 윤정국, 한화택, 안승권, 박성호, 이태준, 전수빈, 노경조		
업무지원	간사 이승구, 서무 이해경		
불참의원			
발표자	기획처장 정승렬, 예산평가팀장 조준, 예산평가팀 양윤선		
안 건	1. 대학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 2. 2017학년도 예산(안) 자문 3. 기타 토의 사항		

◎ 회의내용

▪ 이승구 간사 : 재적의원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오늘의 안건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 2017학년도 예산(안) 자문과 기타 토의사항으로 대학평의원회 운영내규 개정(안)이 있다고 설명함.

대학원 학칙에 대한 비즈니스IT대학원의 답변 자료는 배부를 했고 공과대학 측의 답변 역시 수령했음을 설명함.

▪ 이창현 의장 :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 초반에 교수회 부회장의 학내 논의 중인 '교수임금체계 변경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함

▪ 교수회 부회장(박영일 교수)이 참석하여 학교 측의 '교수임금체계 변경 계획'에 대한 교수회의 의견을 브리핑함

- 학교 측에서 제시한 교수임금체계 변경 계획에 관해 교수회 평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함

첫째, 임금체계 개편의 목적이나 취지가 불분명하다.

둘째, 실질적 임금 삭감의 효과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임금 개편의 이유 중에 하나인 부동산 매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넷째, 징벌적 임금 삭감제도보다는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가 유용하다.

다섯째, 분야별 다양성을 가진 교수들을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섯째, 조직공헌도라는 학교 당국의 자의적 평가기준은 교수 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

- 이에 따라 전체교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투표율 73.84%, 개편 반대 96.4%, 개편 찬성 3.0%의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따라 학교 본부에 개편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고 2월 6일(월)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말함

▪ 윤정국 부의장 : 현재 국민대학교의 취업규칙은 제정 중에 있으며 인사규정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임금체계 대상자인 교원과 학교 측의 충분한 소통의 자리가 있었는지 묻고 외부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는지 질문함

▪ 교수회 부회장 : 단과대학으로 관련 자료가 송부되었으나 따로 소통의 자리는 없었으며 사안이 심각하여 교수회의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외부 법률 자문은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함

▪ 이태준 의원 : 현재 학교 측에서 진행하는 제도의 명칭은 어떻게 되며 성과급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함

▪ 교수회 부회장 : '성과기반 교원 신임금제도'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연구, 교육, 조직공헌도 등이 평가기준이 될 것 같다고 답변함

▪ 이태준 의원 : 조직공헌도는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함

▪ 이창현 의장 : 대학평의원회는 교내 모든 구성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구이므로 교수님들의 애환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예산(안) 자문이 끝난 후 기획처장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질문을 할 것이라고 발언함

[안건 1. 대학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

▪ 이창현 의장 : 제출된 답변에 따르면 공과대학에서도 BIT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에 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별도로 확인한 전자정보통신대학의 의견도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 하였는바,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발언함

▪ 한화택 의원 : 학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큰 문제가 없는 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융합 학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생각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함

▪ 윤정국 부의장 : 예전에 체육대학과 경영대학 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고 첫 번째 심의 회의에서 자세한 추가 자료를 준비했었다면 한 번에 심의가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감이 없지 않으며 앞으로는 사유서나 필요성에 대한 자료들을 미리 보완하여 한 번에 끝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발언함

▪ 이창현 의장 : 단과대학의 경계가 무너지는 융합의 시대에 기본적인 방향은 융합으로 가더라도 사전 논의를 충분히 하여 서로 이견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함

▪ 노경조 의원 : 이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는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들이 대학원위원회, 교무위원회 등을 모두 거쳐 올라온 안건인 만큼 최고 심의기관인 대학평의원회에서 매번 모든 안건에 대해 세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심의 후 중요하거나 미묘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 재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발언함

▪ 이창현 의장 : 중요한 갈등의 이슈 중 최종적인 논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정도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노경조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평의원들

모두가 앞으로 1년간 어떻게 평의회를 운영해나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발언함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 결과 BIT대학원 및 공과대학의 설명자료 및 의견을 듣고 의원들 모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심의에 동의함

[안건 2. 2017학년도 예산(안) 자문]

- 정승렬 기획처장 : 대학 교지 및 교사 확충계획(안)에 대해 발표함
- 노경조 의원 : 매입 대상 건물에 대한 실사 및 건물 노후도 진단은 마친 상태인지, 철거 후 신축해야 할 건물은 없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건물에 대한 실사는 마쳤으며 호림관, 정의관, 도서관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건물이며 진리관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이고 안전 문제는 확인을 마쳤다고 답변함
- 이태준 의원 : 교지확보율이 현재 평가 지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편입생 정원 산정에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어떠한 평가에 교지확보율이 포함되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교지확보율은 4대 지표 중 하나이며 대학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지표라고 말하고 교지, 교사, 교원확보율, 수익용 자산비율이 필수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평가의 일부에만 적용되어 다행인 상황이고 지방 대학에서 교지확보율을 중요 지표로 각종 평가에 적용시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대학을 포함, 서울 시내 대학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고 해서 교지 확보를 차 순위로 둔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발언함.
우리 학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한계에 다다라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며 설립된 지 오래된 학교는 4대 지표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에서 자유스러워 다행이지만 현재 설립되는 대학들은 이 4대 지표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만큼 교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 학교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설명함.
- 이태준 의원 :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지방대 죽이기 정책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지방

대가 요구하는 교지확보율 채택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말하고 4대 지표 향상을 위해 법인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고려보건대 건물 매입에 관해서 법인이 하는 역할은 특별히 없다고 말하고 이는 국민대학교 자산의 문제인 만큼 법인과 연관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답변함

▪ 이태준 의원 : 건축기금 중 건물감가상각비 70억 원은 등록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고 이 사안에 대해 수차례 답변을 하였다고 말하고 국민대학교의 교비회계 예산 중 등록금회계 비율은 52% 정도이고 나머지 48%는 비등록금회계이며 적립금은 교비회계 중에서 건물감가상각비만큼 적립할 수 있는 것이고 교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700억 원 중에는 등록금회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 이창현 의장 : 당해 연도 등록금은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말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지출을 줄이고 알뜰하게 살림을 하여 적립금이 모아졌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립금에 등록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처장의 주장은 불충분한 것 같다고 발언함.

평의원들이 사전 지식이 부족하여 질문을 하는 것인 만큼 처장님은 평의원들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태준 의원도 질문의 요점을 잘 정리하여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발언함.

▪ 이태준 의원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등록금에서 일정액의 건축물감가상각비를 적립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함

▪ 양윤선 : 적립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등록금의 일부가 건축물감가상각비만큼 적립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간 우리 학교의 적립은 순인출만 이루어졌으며, 적립을 해서 쌓아놓고 있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출과 적립이 반복되다가 적립액의 금액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건축물감가상각비가 증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노경조 의원 : 회계라는 것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 나뉘어서 적립되는 것도 아니고 보수 문제 등등 각종 문제들이 건축재정 때문에 생겨난 것이긴 하지만 평의회에서

는 건물 구입비용에 관한 문제보다 객관적으로 건물 구입에 관한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건물을 꼭 구입해야할 객관적인 이유, 지금이 구입의 최적기인지 등등을 먼저 논의하고 그 다음에 비용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고 발언함

▪ 안승권 의원 : 대학발전을 위해 당연한 과제이기는 하나 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하고 법인에서 달성군에 학교 부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평창동 부지도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 질문함

▪ 한화택 의원 : 학교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동감하며 교지 확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꼭 추진해야만 하는 타당성을 구성원들에게 설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고 고려보건대 건물 매입이 나으리 혹은 평창동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이 나으리 잘 판단하여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교수나 동문들도 의견을 함께 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발언함

▪ 노경조 의원 : 교지의 매입은 학교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구성원간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매입 시기나 매입 금액 부분은 고려보건대 측과 상의하여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함

▪ 윤정국 부의장 : 학교 적립금의 예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함

▪ 조준 부장 : 1%대라고 보면 된다고 답변함

▪ 윤정국 부의장 : 건물 매입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 500억 원 가량을 인출한다고 되어 있고 매입한 이후 수입이 연간 2억 원 정도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수강료수입이나 편입생 증원에 따른 수입 증가는 교육부의 정책 등에 따라 불확실한 수입으로서 긍정적으로 수입이 달성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할 것인지, 건물 매입으로 인해 계속 구성원들이 힘들게 살림을 꾸려 가야하는지 궁금하다고 발언함

▪ 안승권 의원 : 현재 나라가 불경기에 진입하고 있고 현 시점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버리거나 하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격의 추이를 고려하여 매입 시기를 전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함

▪ 박성호 의원 : 건물 매입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의 접촉과 협상을 거쳐 현재의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교사가 상당히 부족하여 평생교육원의 강의실 수급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함

▪ 전수빈 의원 : 어차피 위치나 부지의 용도상 우리 학교 외에 이 건물을 매입할 곳이 없으므로 가격을 더 하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았으면 한다고 말하고 건물의 규모가 큰데 매입 후에 어느 단과대학이 이전을 할 계획이며 국제교육원은 새로 신설을 한다는 것인지, 매입을 하게 되면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질문함

▪ 노경조 의원 : 자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르게 하는 두 가지 정도의 계획을 만들어서 자금의 위험도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여 구성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평창동 부지는 약 8000여 평의 규모로서 개략적인 설계도까지 준비하던 상황이었으며 400억 원 정도의 건축비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평창동 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현재 대비 교지의 증가는 없으며 약 3년의 건축기간이 소요되지만 신축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요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전 비용은 들겠지만 고려보건대 건물 매입보다는 3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답변함.

고려보건대 건물을 매입할 경우, 빠르면 1년 안에 이전이 가능하고 교지 및 교사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려보건대 건물의 매입비용 마련을 위해 평창동 부지를 팔게 된다면 이 역시 교육부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매매해야 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상명대 외에는 매매 대상자가 없고 상명대 쪽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함.

고려보건대 건물이 교육기관이므로 매입 가격은 감정가보다 싸게 형성해야한다는 게 우리 학교의 주장인 반면, 고려보건대 측은 감정가대로 거래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은 구체적인 조건까지 언급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건물 매입에 따른 수익은 기대수익이기는 하지만 상환기금을 만들어 상환을 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함.

단과대학의 이전 계획은 공간을 효율성 있게 활용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단과대학을 이전시켜야하기에 다시 논의를 해봐야하지만 건축대학이나 과학기술대학 정도가 언급되고 있으며 국제교육원은 기구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국제교육원의 한국어학당 학생 수가 2부제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강의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평의원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본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재무 부분도 계획

대로 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최대한 위험부담을 없애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함.

▪ 이창현 의장 : 예산(안)을 자세히 보니 모든 지출은 증액이 되는데 반해 연구비만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줄이고 고임금자 문제를 함께 처리하려는 학교 측의 계획으로 보이며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고 발언함. 또한 부총장의 직위를 늘림으로서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점 등도 체크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함

▪ 안승권 의원 : 예산(안) 중에 해외출장비가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각종 출장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함

▪ 이창현 의장 :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의해 2~3년 전부터 미리 언급하고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갑작스러운 진행에 임금체계개편 등과 연동이 되다 보니 우려가 깊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경제 문제와 신입생의 수의 감축이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교지를 확보하겠다는 도전적인 전략에 대해 부정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지만 교내 구성원들의 희생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니만큼 구성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고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작업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함.

대학평의원회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17학년도 예산(안) 자문은 대학평의원회 예산이 확정된 후 자문 종료로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제시함

▪ 윤정국 부의장 : 예산 자문이 끝난 후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 이창현 의장 : 2017년 예산(안) 자문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평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을 종료함

·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의해 2~3년 전부터 미리 언급하고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갑작스러운 진행에 우려가 깊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경제 문제와 신입생의 수의 감축이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교지를 확보하겠다는 도전적인 전략에 대해 부정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지만 교내 구성원들의 희생이 담

보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니만큼 구성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고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작업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함

- 모든 지출은 증액이 되는데 반해 연구비만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줄이고 고임금자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학교 측의 계획으로 보이며 심각한 문제인 만큼 더욱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해외출장비가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각종 출장이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안건 3. 기타토의사항]

- 이창현 의장 : 교수임금체계 변경 계획에 관해 교수회에서 오늘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였었는데 학교 측은 어떤 계획인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학교 측에서 이 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전체 교수들에게 확정된 안을 제시한 적은 없으며 단지 가안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하고자 한 것으로서 이에 단과대학별로 이 문제에 관한 의견과 수정사항을 요청하여 반대의견부터 수정요청사항까지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고 말하고, 교수의 사기도 살리면서 성과의 향상과 학교 재정상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도 학장들과 논의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의견이 구체화되면 전체 교수들에게 전달, 피드백을 받아 몇 차례 더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답변함

- 이창현 의장 : 이 문제는 교수들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 평의원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제도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자기 정체성 문제, 사회적인 평판의 약화 등 우려가 큰 만큼 좀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지지를 할 때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함

- 안승권 의원 : 우리 학교를 역세권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전철 노선 유치 계획을 발전 전략에 넣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2020년 9월에 국립공원 경계 조정 작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라인을 동원하여 교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으면 하고 동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발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전철 노선 유치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국립공원 부지 학교 편입에 관해서는 산림청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교발전위원회도 만들었다고 답변함

▪ 노경조 의원 : 어떠한 문제가 언급되고 논의될 때 대학평의회에서 그러한 문제를 된다, 안 된다, 해라, 마라 하여 그것이 100%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고 학교발전위원회가 있다고 기획처장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위원회에 평의회 의장(교수회 회장)이 참여를 하여 총장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상시 대면하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함

▪ 윤정국 부의장 : 학교발전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이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알려주기를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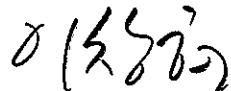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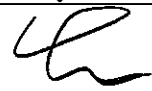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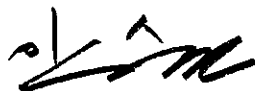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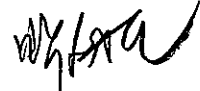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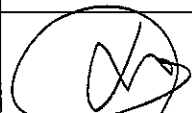
▪ 이승구 감사 : 학교발전위원회에 대하여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답변함.
단과대학 개편에 따른 대학평의회 운영 내규 개정(안)에 관하여는 의원들에게 메일로 자료를 배부한 후 다음 회의에서 개정 논의를 하기로 결정함.

▪ 이창현 의장 : 폐회를 선언함

붙 임 : 제70차 대학평의회 회의 자료 1 부.

제7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참석 확인

- 회의일자 : 2017. 2. 6(월) 10:00

구 분	이 름	확 인
의 장	이 창 현	
부의장	윤 정 국	
의 원	김 동 훈	불 참
의 원	한 화 택	
의 원	김 영 속	불 참
의 원	안 승 권	
의 원	김 춘 형	불 참
의 원	박 성 호	
의 원	이 태 준	이태준
의 원	전 수 빈	
의 원	노 경 조	